

대학의 本質的 矛盾과 大學教育의 방향

대학사회는 본래 矛盾的 性格을 지니고 있다. 우선 대학구성원을 보더라도 대학은 다른 조직과는 달리 뚜렷하게 세대를 달리하는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과 교수라는 대학의 양대 구성원은 世代를 달리한다. 그로 인해 다른 문화를 수용하거나 그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서도 갈등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대학사회의 모순은 大學의 起源으로부터도 연유한다. 대학의 기원을 이루는 중세의 대학에는 학생 길드가 인정되는 대학과 이에 대해 교수 길드가 형성된 대학이 각기 존재하였다. 이렇듯이 대학의 두 가지 유형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교수와 학생의 견해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두 세대간에는 기본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대학사회의 葛藤과 矛盾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역사적 변혁의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은 가치체계를 같이하기보다는 대체로 갈등의 모습을 보여왔다. 학생들은 4·19 혁명의 주체였으며 유신과 제5공화국의 체제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 교수들은 대개 (물론 4·19 직전 교수단 데모라든지 유신과 5공화국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였던 교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정치질서에 순응하면서 체제유지적 성격을 띠어 왔다. 이같이 사회모순이 심화되는 시기마다 서로의 정치적 지향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대학내의 양대 성원인 교수와 학생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대학의 위기로까지 표출되는 양상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대학은 바로 이같은 모순과 갈등을 본질로 하여 존재하고 또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은 본래 교육의 일반적인 기능인 사회의 유지·존속을 위한 기능 이외에도 사회변혁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대학 이전의 교육이 사회의 유지·존속의 기능을 더 강조하는 교육이라면, 대학은 사회의 발전과 변혁 추구의 기능을 더 강조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대학의 상아탑적 개념은 현실적인 맥락을 떠나서나 얘기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은 바로 이 두 가지 기능, 즉 사회의 현상유지라는 문화의 계승적 측면과 변혁추구라는 비판, 변화에의 도전이라는 모순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교육기관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내에서 일어나는 現狀維持와 變革指向 간의 모순과 갈등은 예외적인 문제상황이 아니라 대학의 본질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대학 내부의 이러한 모순과 갈등이 대학 밖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증폭되거나 과장되게



昌原大 總長 朴 楠 珪

비쳐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대학내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학구성원들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리한 데서 기인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의 방향은 바로 이러한 大學教育의 社會的 機能 속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대학은 한편으로는 사회유지의 기능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변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학의 이러한 갈등은 필연적이며 따라서 발전적으로 용해되었을 때, 대학교육은 사회의 제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변혁의 국면을 맞이하리라 예상된다. 국제적으로는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 이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미·일 패권주의와 신민족주의의 물결 속에서 自主的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民族統一과 民主化를 이루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 앞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역사적·민족적 과제는 대학교육의 방향설정에도 하나의 지표로 작용할 것이다. 한 나라의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대학이 정체되거나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여서는 그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보장하기 어렵다. 바로 이같은 모순적 과제를 대학교육이 수용함으로써 역사발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내의 모순과 갈등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학의 모순과 갈등을 문제상황으로 규정하여 이를 완전히 제거하려들기보다는 發展的으로 受容하는 대학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적 방향은 현상유지만을 고집하는 입장에서 보면 미덥지 않고 어찌면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현상 자체가 대학과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學問의 自由는 대학의 자유의 본질로써 신장되어야 하며 비판정신이 살아 있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의 구성원들은 대립을 위한 대립이 아니라 대학과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相互批判의 견지에서 서로의 갈등과 대립을 긍정적으로 조정·수용해낼 수 있는 성숙한 태도를 길러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조화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대학교육의 사명이기도 하다. ▣